

작가와 만남·시 낭송...문학과 특별한 한 주

7일까지 문학주간 행사 다채

광주 동네책방 젊은 작가와 소통 시간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영랑생가 사계'
해남 출신 최성배 작가 해남고 특강

“당신은 문학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우리는 때로 어떤 문장은 눈으로 보지만, 어떤 문장은 소리가 되어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시구는 조심스레 쓰다 들어 보게 되고, 어떤 말에선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무뎠던 감각을 깨워줄 문학의 매력, 문학주간 2017에서 만나보세요.”



소설가 정지돈

‘문학주간 2017’이 7일까지 ‘문학, 감각을 깨우다’ 주제로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광주의 검은책방책방, 서울 마로니에 공원을 비롯해 전국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문학주간 행사는 지난해 ‘문학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여 문학의 생활화로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문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공동 주관한다.

올해 행사는 문학주간에 맞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참여하는 소통형 방식의 국민축제로 준비했다. 전국의 32개 문학관, 문학전문책방 11개소, 38개 종교교에서 라디오 공개방송, 작가 출연 무대(작가스테이지), 북토크쇼, 작가 대담 및 특강, 문학 3일장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르고 있다.

먼저 광주에서는 2일 동구 서석동에서 자리한 검은책방책방에서 젊은 작가 초청 낭송회를 개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검은책은 소설을 흰책은 시집을 뜻한다’는 책방 이름답게 소설과 시를 매개로 한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2일 행사에서는 젊은 작가들 가운데 주목받



올해 문학주간을 맞아 전국의 문학관, 동네서점 등에서 다양한 문학 행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강진 시문학파기념관에서 진행된 ‘문학관에서 듣는 옛날 이야기’ 장면.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제공>

는 정지돈 소설가와 백은선 시인을 초청해 낭송회와 특강을 진행했다. 작고 아담한 공간에 30여 명의 문학 독자들이 참석해 젊은 작가들과 문학을 매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검은책방 한책방’은 오는 26일에는 기본소득이란 내용으로 한겨레21에서 후원하는 강연을 연다고 한다. 참가비 무료. 문의 010-7608-9896.

강진 시문학파기념관에서는 ‘문학관에서 듣는 인문학 이야기’가 5일과 7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강진 초등학교와 강진 중학교를 초청해 다양한 인문학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6일(오전 10시)에는 ‘문학관에서 듣는 옛날 이야기’가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강진 은파어린이집 원생 50 여명을 초청해 ‘이야기 할머니의 동화 읽어주기’가 예정돼 있다.

지역민과 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학작품 낭독 및 문학 토크도 이어진다. 30일까지 시문학파기념관 2층 북 카페에서 진행되는 ‘문학관 북 카페에서

보는 영랑생가四季’는 계절 따라 변화하는 영랑생가를 문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행사다.

운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강연도 펼쳐진다. 서울 청운문학도서관은 5일과 6일 ‘우리에게 운동주는 무엇인가-동아시아에서 운동주의가’ 등을 주제로 운동주의의 삶과 문학 세계를 조명한다.

해남고에서는 7일 송지면 출신 최성배 작가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한다. 1986년 등단 이후 현재까지 다수의 작품을 발간한 최 작가는 해남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에 관한 의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5일 서울 예술가의집에서는 전국 문학관 워크숍이 열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광주 출신 박봉구 시인, 김선기 강진 시문학파기념관장 등이 참석해 ‘전국문학관 네트워크 구축의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양림동을 위한 피아노 12개 모음곡 연주

오늘 ‘월요콘서트’ 첫 무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한주의 시작을 ‘월요콘서트’로 삼쾌하게 시작한다!

올해 ‘월요콘서트’ 첫 무대로 ‘문화창작소 그레이스(대표자 이승규)’의 ‘클래식 콘서트 양림’이 오는 4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월요콘서트’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목요상설무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작품에 무대에 올리며 관객들과 소통했다.

첫 무대 ‘클래식 콘서트 양림’은 광주 근현대 역사지 양림동을 주제로 한다. 역사, 문화, 건축, 인물을 소재로 한 이승규 작곡의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양림’, 시낭송과 함께 하는 가곡

‘양림, 시인의 마을’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12개의 모음곡 ‘양림의 거리’를 선보인다.

‘문화창작소 그레이스’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콘텐츠 기획제작사업과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단체다. 이승규 씨가 단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작곡가와 피아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공연은 소프라노 최은정, 피아노 김지현, 시낭송 김귀숙 씨가 함께 한다.

선착순 100명 접수받는 다(8세 이상 관람 가능. 일반 1만 5000원, 고등학교 이하 학생 1만원).

한편 ‘월요콘서트’ 오는 11월 20일까지 열리는 10월 10일 클래식,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 공연으로는 9월 11일 ‘창작곡악그룹 그루’가 ‘쉼터’ 무대를 선보인다. 문의 062-670-794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브람스의 낭만 선물

이유정·김재준·김재은 트리오

오늘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독일 유학파 출신 클래식 연주자들이 아름다운 앙상블을 선사한다.

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이유정·김재준·김재은 트리오 콘서트-가을의 선물’.

이 날 공연은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스케르초’, ‘첼로 소나타 1번’, ‘피아노 삼중주’로 꾸며진다.

이유정씨는 연세대를 거쳐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서울신포니에타 피아니스트 등으로 활동중이다. 김재준씨는 한국 예술종합학교,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거쳐 더 콰르텟 앙상블 등에서 활동중이며 전남대, 독일 카셀 음대 등에서 수학한 재은씨는 랑 현악 4중주중단 등 실내악 그룹에서 연주하고 있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10-4301-1929.

전은재기자 ej6621@



위부터 김재은·김재준·이유정

창간호부터 발간사·수록 작품 목록 한눈에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 20호 발간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의 작품집 ‘금남로 가는 길’(20호·전일출판·사진)이 최근 발간됐다.

작품집에는 28명의 문인들이 창작했던 시, 소설, 동시, 동화 등 다양한 신작들이 수록됐다.

시 부문에는 김효은, 노창수, 박문재, 박승자, 이수형, 정려성, 정영희, 진혜진, 최진 시인의 작품이 게재됐고 소설 부문에는 김해숙, 이원하, 이은유, 차노휘, 홍광석 작가의 작품이 수록됐다.

동시와 동화 부분에는 김옥애, 송동연, 송재진, 위영남, 이준섭, 박찬섭, 안영옥, 윤삼현, 정은수, 정혜진, 황성진 문인들의 작품이 담겼다. 또한 이번 작품집에는 2016년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가

들의 당선작도 볼 수 있다. 진혜진 시인의 ‘통화음이 길어질 때’, 김해숙 작가의 ‘누룩을 꺾다’, 황성진 동화 작가의 ‘오렌지 주스를 따르는 방법’ 등이 실렸다.

눈에 띄는 것은 ‘금남로 가는 길’ 창간호(1996년)부터 20호까지의 연표가 수록돼 있다는 점이다. 역대 회장들의 발간사와 당시에 수록됐던 작품의 목록은 한 해 한해 걸어왔던 문학의 역사를 오롯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보여준다.

아울러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광주일보 문학상 수상 연보(1회~11회)도 정리돼 있다. 1회 수상자인 송은일 작가부터 11회 수상자 안영옥 동화작



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11명의 문학상 연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문학회 회장인 채희운 광주여대 교수를 ‘용비의 날개를 위하여’라는 발간사에서 “우리들의 행동 모두는 광주일보와 함께 시작되었고, 함께 걸어온 것 같다. 참 든든한 지지대였다.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문학인의 맑은 덕성과 비범한 해안으로 보다 좋은 다음 호를 위해 서로의 손을 잡아보자”고 20호 발간 소감을 피력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내일 해설이 있는 음악회 ‘클래식 큐레이터’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클래식 큐레이터’가 5일 오후 6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클래식 초보부터 마니아까지 고전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렉처 콘서트’다.

재지 있는 입담의 비올리스트 이신규의 해설과 바이올리니스트 정예지, 신영은, 첼리스트 강찬욱, 피아니스트 이현진이 연주를 들려준다.

해설을 맡은 이신규는 줄리어드 음대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친 차세대 연주자로 피아졸라 ‘아디오스 노니노’와 ‘리베르탱고’를 새롭게 편곡하여 들려준다.



해설가 이신규

또한 고전주의 모차르트의 12개의 변주곡 다장조 K 265 ‘어머님께 말씀 드리지요’, 낭만주의 선구자 슈만의 ‘피아노 5중주 내림 마장조’, 인상주의 음악가 드뷔시의 ‘달빛’, 20세기 탱고 거장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등 시대별 다양한 음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티켓 가격은 청소년 무료관람, 성인 2만원(시립예술단 회원30%)이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gjart.gwangju.go.kr)에서 가능하다. 문의 062-613-8235.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병원

- ★ [의료시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요양병원 (2천평 신축부지 허가완료 포함) 지하층 지상5층 토지 19,860㎡ 건물 2,545㎡ 매매 5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의료시설가능함 (현 상가건물임) 지하층 지상7층 토지 995㎡ 건물 2,030㎡ 매매 47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동구 산수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97㎡ 건물 948㎡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양산동 지상5층 토지 475㎡ 건물 1,044㎡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350㎡ 건물 3,943㎡ 매매 5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 100억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생산관리지역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매매가 상당후결정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T. 062-714-2251